



차이를 넘어 차별없는 세상으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 한라체육관서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는 4월 20일 한라체육관에서 '차이를 넘어 차별 없는 세상으로'를 슬로건으로 제30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사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자활 의욕 고취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해 각급 기관·단체장 및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5·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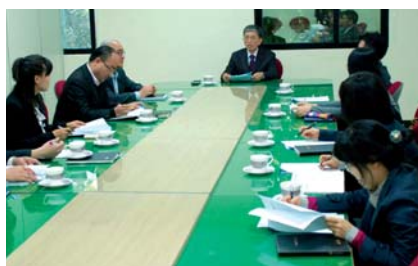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인 권현장 낭독,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강지훈씨가 장한 장애인 대상을 받는 등 유공자 40여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부대행사로 장애인생산품 홍보 및 판매, 휠체어 및 보조구 수리서비스, 장애인 결혼상담,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절궁, 가훈씨주기 등도

마련됐다.

제주영지학교와 제주영송학교 학생들은 바리스타 현장 실습으로 참석자들에게 커피를 제공했다.

이에 앞서 4월 13일에는 비장애인과 어우러지는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주최로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가 열렸다.



협의회 법인 간부 정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법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월 30일 협의회 소회의실에서 법인 간부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아라어린이집의 5월 주요사업인 사회복지아카데미와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원봉사자 체육대회 등의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학대가 없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며 노란색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제3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산지천 일대에서 열려

제3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가 4월 27일 제주시 산지천 일대에서 김태환 제주지사와 양성언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아동권리헌장과 결의문 낭독, 노래공연, 소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가자들은 산지천 분수대를 출발, 중앙포터리를 거

쳐 목관아지까지 거리캠페인을 벌여 도민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며 도민 모두가 '아동 안전 지킴이' 역할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동학대 사진전과 아동학대 추방을 위한 서명운동도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한편 제주도는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07년 '아동학대에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 아동에 대한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아카데미 5월 교육 안내

홍보동영상제작교육
일시: 5월 12일 10:00-17:00
내용: 동영상제작실습, 동영상활용 보고서 작성법 등

사례관리자양성교육
일시: 5월 19일 14:00-18:00, 5월 20일 10:00-17:00
내용: 사례관리기초, 실천과정 등

SNS활용교육
일시: 5월 28일 10:00-15:30
내용: 사회복지영역에서 SNS 활용 등
장소: 사회복지협의회심다수홀 (공동)

지면소개

- 종합 2·3면
푸드마켓 후원운동 집중 전개
시설 탈방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 사회복지소식 4·5면
행복찾기 작은음악회·소식마당
장한장애인 대상 강지훈씨 인터뷰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사회복지세법 도입토론회

디자인 열림

DESIGN
YEOLL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3동 2730-4번지
Tel, 064-746-0775 Fax, 064-746-0774

열린**시각** 열린**공간** 열린**사고**
“열림이 생각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나누면 행복이 커져요”

道, 이달부터 푸드마켓 후원 운동등 집중 전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 나눔 에너지 확산에 나선다.

제주도는 이웃사랑 분위기 조성 및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푸드마켓 후원자 되기’ 및 ‘사랑의 열매 1계좌 갖기’ 운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사랑나눔 푸드마켓 후원자 되기’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식품을 기부하거나 월 5000원 이상 약정금액을 후원하는 방식의 모금으로,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식품을 지원한다. 후원금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쌀, 면류 등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푸드마켓은 식품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장터로서, 식품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직접 매장에 방문해 원하는 식품을 직접 선택하는 이용자 중심의 상설무료매장이다.

‘사랑의 열매 1계좌 갖기 운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조체제를 구축, 1계좌당 월 1만원 이상 기부금을 약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독거노인, 장애인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쓰인다.

제주도는 우선 도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

이고 공공기관 및 단체, 기업체 등의 후원계좌 개설과 식품기부 등 참여를 유도해 사랑의 열매 6억4900만원, 푸드마켓 후원 1억80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후원을 원하는 도민, 단체, 기업체는 후원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702-3784)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755-9810)로 제출하면 된다.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 지역사회에 행복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일도2동 ‘두맹이복지회관’ 개관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동장 양석하)는 4월 13일 김태환 제주시장, 김방훈 제주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맹이복지회관 개관식을 가졌다.

제주시 일도2동 995-6번지(제주동교 남쪽 200m)에 들어선 두맹이복지회관은 12억 1200만원이 투입됐다.

연면적560.17㎡에 1층에는

어린이집과 원터가, 2층에는 다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이, 3층에는 하늘공연장이 마련됐다.

두맹이복지회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나눔과 소통의 공간, 어르신들의 멘토 기능 및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지역문화를 공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유치...장애인 치과진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유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우수한 의료진 확보와 첨단장비 비치 등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애인들에 대한 구강진료 체계가 획기적인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국비 16억원과 지방비 16억원 등 32

억원이 투입돼 서귀포시 서귀동에 건립되고 있는 제주재활전문센터 6층에 설치된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내원 장애인 치과치료 및 재가 장애인 방문치과 치료 ▲보건소와 연계한 장애인 치과 예방 진료사업 ▲지역사회 협력과 연계를 통한 치과의료 응급체계를 구축하는 중심거점 역할 ▲장애인 구강진료 및 보건 담당

자 교육사업 ▲장애인 구강치료 대응방법을 위한 구강보건연구사업 등을 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로 장애인 치과의료 소외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 도입

교육기관 설립도 지정제로 변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필기(요양보호론)

와 실기(요양보호 관련내용) 2과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60% 이상의 득점을 얻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방식은 신고제에서 제주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지정제로 전환됐다.

4월 26일 이후에 설립하는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장을 두고, 사무실 포함 연면적 8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교육기관은 10월 25일까지 기준을 갖춰야 한다.

교육복지사업 맞춤형 방문 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연구지원협력단은 사업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교수와 지역복지기관, 학교,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지원협력단은 7월 8일까지 유치원 13곳과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9곳 등 사업학교 32개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대상 학교에서 요청한 주제에 대한 상호토론 및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2006년부터 시작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해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삶 전반의 체계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교육취약성을 해결하고 있다.

제주복지관-오현고 ‘멘토링’ 업무협약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과 오현고등학교(교장 백광익)는 4월 10일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교육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학습멘토링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멘토-멘티 결연식을 맺었다.

앞으로 오현고 학생 30명은 어린이들을 위한 멘토로 나서 토요일을 활용해 학습은 물론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



는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 나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관광대학 치위생과 자원봉사 기초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동한)은 4월 12일 제주관광대학에서 치위생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학생들은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자원봉사 활동시 자세, 장애유형 및 장애 유형별 기본 에티켓 등을 배우며 장애에 대해 이해를 갖는 계기가 됐다.

직한 소비습관과 효과적인 용돈관리, 비즈월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나 학교,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경제교육센터로 문의(702-5090)하면 된다.

〈조순옥 명예기자〉

‘어린이 경제교육’ 신청하세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경제교육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의 경제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놀이와 체험중심의 창업프로그램인 청소년 경제증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경제증권교실은 학생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생산의 경제, 소비의 경제, 저축, 투자, 증권 등 살아있는 경제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화폐발달과정과 경제순환과정, 바람



사회복지협의회 2010년 3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940,000	940,00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1,250,000	1,250,000
복지사업후원	2,095,000	336,390
푸드마켓후원	885,000	734,39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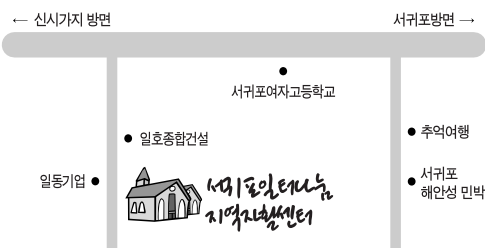
시설탐방

(30) 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서귀포 저소득층 자활 전인차

2001년 4월 서귀포시에 자리잡은 서귀포 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센터장 임철남).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4월의 어느 오후 저소득층의 자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를 방문했다.



서귀포 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 자활의욕을 높이고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제공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자활공동체 7개 사업단과 자활근로사업 부문 등에 15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는 이들에게 취업·창업 알선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자립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자활공동체 사업 중 하나인 아가누리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인 이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우미가 출산가정에 직접 가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도우미 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입소문을 타고 현재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유료간병사업인 돌보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4명이 병원과 가정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기능교육



아가누리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주력

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제주액비(액비사업) ▲제주빛깔(전원염색사업) ▲한울건축(집수리사업) ▲그린향기 사업단(화장실청소사업) ▲클린서귀포(청소사업) ▲푸집한 밥상(음식사업) ▲한아름 가득(도시락배달사업) ▲맑은 세상(환경문화사업) 등을 통해 자활참여자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을 예방하고 독거노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번의 신청으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

와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운영하고 있다.

김지영 실장은 “과거에는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들이 우선 사업에 참여하고 나중에 지정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자활참여자의 요건이 강화돼 대상자 조사기간만 한 달 정도 걸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며 사업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실장은 이어 “앞으로 지역 자활의 견인차 역할을 특히 수행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센터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자 명예기자〉

道 보건복지여성국 ‘청렴행정’ 펼친다

복지청소년과 등 4개 부서 10개 중점 실천과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은 청렴과 투명성에 바탕을 둔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부서별로 10개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서별 청렴 복지행정 중점 실천과제를 보면 복지청소년과는 ▲청렴행정 추진을 위한 ‘감성게시판’ 설치 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개제도 추진 ▲올해의 사회복지 공무원 선발 운영 ▲도내 공직자 사랑의 열매 1계좌 갖기 추진 ▲사회복지 공무원 청렴교육 및 워크숍 개최 ▲‘함께 하는 행복플러스’ 자원봉사 활동 동아리 운영 ▲취약계층 찾아나서는 현장 ‘이동상담실’ 운영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제’ 운영 ▲이달의 청렴도서 읽기 ▲사회복지·청소년 단체·자활사업단 등 보조사업 단체 업무지도 정례화 등이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직원 교육을 통한 청렴 생활화 ▲담당이 봉사활동 전개 ▲노인·장애인 보조금 담당자 청렴명함 제작 사용 ▲노인·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워크숍 ▲양자공원 민원불편접수 창구 설치 ▲화장유언납기기 서약 접수창구 설치

▲양자공원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매뉴얼 작성 ▲노인·장애인 업무행정시 지도 ▲민간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등이다.

양성평등정책과에선 ▲청렴이행 다짐의 날 운영(분기별) ▲보조금 담당자 등 청렴명함 제작 ▲업무 매뉴얼 수첩 제작 ▲현수막 및 인쇄물 제작시 청렴구호 게재 ▲복지시설 등 봉사활동 전개시 사전 청렴실천 결의 ▲복지시설 등 현장 지도 점검 ▲공무원 청렴의식 강화 ▲직원별 청렴사이버 교육이수 ▲도 및 행정시 직원간 워크숍 실시 ▲민간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및 평가 ▲각종 행사시 청렴행정 홍보물 배부 등 10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위생과 10개 과제는 ▲상시 직장교육을 통한 청렴 생활화 ▲현장지도단속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의료기관 지도점검 예고제 ▲지도점검 매뉴얼 설정 ▲현장지도점검공무원 클린리포트제 운영 ▲일련번호 확인서 사용 및 비리신고 안내문 배부 ▲명예감시원과 합동지도단속 ▲단체와 클린 청렴협약 체결 ▲제주넷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예산집행 실태제 등이다.

청소년들의 숨은 ‘끼’ 뽐내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문화존’으로 지정된 제주시 산지천문화예술마당에서 매주 토요일 청소년들의 숨은 ‘끼’가 발산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허철수)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 기획하고 공연하는 다양한 문화표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4월 24일 산지천 문화예술마당에서 청소년 문화존 선포식을 열고 매주 토요일 청소년과 함께 하는 공연마당과 체험관을 11월까지 운영한다.

청소년 문화존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센터 주관으로 시민, 관광객, 청소년들이 어우러지는 한마당 축제로 진행된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각급 청소년

동아리 및 청소년관련 단체에서 신청한 프로그램을 심사 거쳐 선정했다.

5월에는 국악한마당, 가족과 함께하는 축제한마당 ‘Family, Festival, Fun’, 너와(와) 나의 (戀)창 ‘청소년들의 소통거리’가 진행된다. 6~7월에는 자살 예방 캠페인과 청소년기네스대회, 제1회 (詩)시)사랑 축제 등이 이어진다.

특히 문화존 공연 중 2회는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존을 운영, 동·서부 읍면지역을 방문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를 20회 이상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도자기 유리 상패 특허 출원

해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만숙)은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도자기 유리 상패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해정원은 이번 특허 출원을 계기로 각종 트로피 및 크리스탈 상패와 더불어 다양한 제품과 품질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성장애인밴드

WPM 결성 '눈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는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을 받아 도내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3월부터 여성장애인밴드 WPM(Woman Power Musician)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여성장애인 리더 양성교육'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전문 문화예술인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인력으로 충원돼 직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론교육에 이어 키보드, 드럼, 기타, 베이스 등 각종 악기를 배우고 앙상블 훈련을 거쳐 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음악으로 행복을 전해요

'행복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행복이 뭔지를 쉽게 노래함으로써 보여주는 이들이 있다. 바로 제주에서 인디밴드로 활동하고 있는 '연금술사'다.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미예랑 소극장에서 3년째 정기적으로 음악공연을 해오던 인디밴드 '연금술사'가 이젠 직접 찾아가서 행복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연금술사와 함께하는 행복찾기 작은 음악회'를 시작했다.

연금술사는 첫 코스로 4월 5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제주 애덕의집을 찾았다.

이날 제주애덕의집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뜻 깊은 날이라 공연이 더욱 의미가 있었으며, 싸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식구들이 자리를 지키고 흥겹게 음악을 즐기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금술사는 '모두들 행복 구상중, 너와 나 우리, 우리가 처음 만난 시간, 츄크츄크' 등 자신들의 창작곡은 물론 '제주애



연금술사, 4월 5일 애덕의집서 첫 공연...월 1회 예정

덕의집원가'를 직접 편곡해서 식구들에게 선사하는 깜짝 이벤트도 마련했다. '바위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등 식구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사전에 준비해 다 같이 연주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제주대학교 아카펠라동아리 '칼리오페'와 제주기독교문화원 '천국의 속삭임'이 찬조 출연했으며, 미예랑 소극장과 '로드사운드'에서 악기와 음향장비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연금술사는 월 1회 도내 어느 곳이든 행복을 갈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음악회를 계획

하고 있으며 음악회 신청도 받고 있다.

연금술사의 한 멤버는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웬지 모르게 급하게 가고 있고 웬지 모를 고민이 있는 얼굴로 있는걸 보잖아요. 알고 보면 별것 아닌 누구나 하는 걱정거리인데... 저희는 행복은 항상 우리 옆에 있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행복을 느껴요"라고 말했다.

문의=722-5254, 미예랑 소극장 기획팀장 양지안.

〈김용성 명예기자〉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열려

제주정신건강센터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주지부, 제주알코올상담센터와 공동으로 4월 8일 제주대학교병원 2층 대강당에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일반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인 자살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정신건강 선행식사 및 상담이 실시됐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이어 영화 'Last Days' 상영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기 정신건강'을 주제로 정신과 전문의의 강연이 진행됐다.



소/식/마/당

해송민속무용단, 제주양로원서 공연



해송민속무용단(단장 윤경월)은 4월 14일 제주양로원·제주요양원을 찾아 전통무용(물허벌춤·해녀춤)과 장구춤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해송민속무용단은 거동이 불편해 문화체험의 기회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 공연을 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지역사회적응사업 실시



동계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경희)은 결혼이주여성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적응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글교실과 요리교실, 문화체험교실,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이 사업에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결혼이주여성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가롤로의 집 5주년 기념행사



가롤로의 집은 4월 17일 유관기관 내·외빈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기념미사를 시작으로 기념식,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그동안 이용자들이 갈고 닦은 작품솜씨를 뽐내는 자리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화북초, 톨페인팅교실 운영



화북초등학교(교장 유제호)는 4월 15일 학부모 및 지역주민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톨페인팅교실을 운영했다.

톨페인팅교실은 '나의 비상 서프라이즈'를 주제로 오는 20일까지 홍현영 원장의 지도로 진행되며, 톨페인팅(Tole Painting)은 나무, 금속, 도자기, 천 등에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다.

뜨레모아 도예공방 운영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제주시의 지원을 받아 도예공방 시설을 설비해 뜨레모아 도예공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월·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되며, 일반생활자기와 인테리어 소품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문의=757-9119.

창암재활원, 음악치료 프로그램 진행



창암재활원은 생활시설 중증장애아동의 신체감각기능 향상 및 심리안정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인 '감동이 살아있는 music show'를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음악치료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뇌병변 생활인들과 지적장애 생활인들을 각각 나눠 진행되고 있다.

지적장애인 리듬합주팀 구성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입소 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리듬합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 프로그램의 지도는 바하기타학원 강병국 원장이 맡고 있다.

송죽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악기연주방법을 익혀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은 물론 자체행사 및 외부공연에 참여해 만족감과 성취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직원동호회와 밸리댄스팀과 함께 애월읍 관내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공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1318 우리들의 합성(性)!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4월부터 관내 중·고등학교와 연계해 '1318 우리들의 합성(性)!' 섹슈얼리티(sexuality)를 말한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함께하는 성(올바른 성에 대한 이해), 섹슈얼리티를 말한다(또래 간 성폭력에 방과 올바른 이성교제에 대한 이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게 하고 성문화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길러 성적 위험에 대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장애는 극복할 수 있어요”

“너무 과분한 상을 받아 부담감이 크지만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선천적 시각장애 1급인 강지훈씨(26)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한 ‘올해 장한 장애인 대상’을 수상했다.

지훈씨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힘든 어린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주저앉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이겨내 1994년 영지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자신과 자신과 같은 장애와 관련된 영역에 흥미를 갖고 2003년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그의 캠퍼스생활도 순탄하지않은 않았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학기 중은 물론 방학기간 내내 안마사 아르바

이트를 해야만 했고, 시험을 치러야 할 때면 대필자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런 와중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교원자격증 및 점역·교정자격증을 취득, 지난해 4월에는 점역

강지훈씨 장한 장애인 대상 수상

올해 홀로 전국일주 도전 ‘야심’

교정사로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에 취직해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점자와 점자정보단말기를 가르치고 있다.

지훈씨는 “교육대상자들의 개인의 욕구와 학습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다. 하지만 나를 믿고 매일같이 나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쉬운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



△올해 장한 장애인 대상을 수상한 강지훈씨(가운데)가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와 점자정보단말기를 가르치고 있다.

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게 점자를 배우고 있는 송창용씨(시각장애 1급)는 “배우는 사람 입장에 서서 알기 쉽게 성심성의껏 가르쳐 준다”며 “선생님은 사명감이 매우 투철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는 지훈씨. 활동보조인을 신청해 편하게 생활을 하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그는 “편안한 것만 찾다보면 결국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결국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그러다 보면 남의 도움 없이는 집에서 쫓겨 숨어 있어 집밖으로 나오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올해 보행자용 네비게이션이 나오면 반드시 홀로 전국일주에 도전하겠다는 지훈씨. 그에게 장애는 단지 극복해야 하는 산 하나일 뿐이다.

그는 오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시내버스를 이용해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에 출근한다.

〈양정선 명예기자〉



중증장애인 사회적응력높이기

임배움터는 4월 9일부터 임배움터의 근로장애인인과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동아리프로그램 칼라플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승마활동, 목공예, 요리활동으로 나뉘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정도를 고려해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동아리 활동을 실시해 장애인은 물론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승마동아리 활동은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 흥미유발에 큰 효과가 있으며, 목공예는 자신의 손으로 가구를 완성해가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오감으로 느끼는 숲 기행

제주청소년지도사회

제주청소년지도사회(회장 강철남)는 4월 10일 한남시험림에서 청소년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세계 속 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오감으로 느끼는 숲 기행’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숲 생태 체험 및 뱀눈으로 하늘보기, 사려니 오름 등반, 폐목 목걸이 만들기 등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또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환경개발·보존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은 수련활동이 청소년



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심사 및 운영·관리하는 인증프로그램이다.

한편 제주청소년지도사회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등에 기여하기 위해 2003년 6월 도내 청소년 지도사 250여명이 결성, 각종 세미나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건전프로그램 개발·시행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아구강기능 향상 워크숍

제주장애인요양원은 3월 27일 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건물 4층 대회의실에서 2009 중증장애아동의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섭식케어프로그램 섭식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사회에 섭식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기본적인 섭식스킬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워크숍은 제주한라대학 작업치료과 채수경 교수의 작업치료적 접근방법과 부산 도담도담 아동발달센터 조주현 원장의 언어치료적 접근방법으로 진행됐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산다수 2ℓ 1800개, 감귤주스 150ml 1000개 ▲(주)금강축산유통=육류 288kg ▲서문식품=두부 384모 ▲김치원=김치 60kg ▲개인기부자 고용범=김 3상자

개인긴급지원사업 1억3천여만원 지원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올해 1분기에 개인긴급지원사업으로 총 87건에 1억 3000여만원을 지원했다.

개인긴급지원사업은 재난, 재해 및 질병, 주소득원의 사망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의 시급한 생계·의료·주거비 문제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구호 및 사회복지영역의 긴급지원이 필요한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1분기 긴급지원사업비 지원

내역은 ▲생계비 12건 680만원 ▲의료비 30건 4686만 6110원 ▲주거비 45건 7726만원 등이다. 올해 총예산은 4억5000만원이며, 지난해에는 321건에 3억8440만여원을 지원했다.

의료비 및 생계비·주거비가 긴급히 필요한 개인이 사회복지기관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공동모금회의 현장심사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된다.



道노인복지회관 어르신동아리 결성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관장 전영록)은 4월 7일 회관 강당에서 관계 공무원과 기관단체장, 어르신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전문봉사단과 동아리결성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결성된 헌터봉사단은 연중 올레길 정화활동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며, 사물놀이 동아리는 주 1회 정기적인 연습

을 통해 실력을 쌓은 뒤 지역행사 등에서 공연활동을 벌인다. 수화동아리는 주 1회 교육을 거쳐 도내 수화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등 어르신들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복지회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어르신들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존경받는 노인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道자원봉사센터 ‘그린 숲 가꾸기’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4월 24일 제주시 연동 민오름 일대에서 다문화 가족, 한울간병봉사회, 제주불교사회봉사회 등 10여개 단체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녹나무와 관나무를 심는 등 그린 숲 가꾸기 자원봉사운동을 벌였다.

칼럼

침묵으로 말하는 수화



김길웅
수필가·시인

나는 수화를 모른다. 아는 거라고는 엄지와 검지를 꺾 펴서 ‘스’자로 ‘사랑’을 그리는 것 하나다. 황사평 인근에 장애인 시설이 문을 열던 때의 일이다. 장애인 자녀를 셋이나 가진 친지가 몸을 던져가며 나선 일이라 개원식에 갔었다.

손놀림·표정·몸짓 모두 감동

밖에서 의식이 치러졌는데 꽃샘으로 3월이 무색하게 추웠다. 내가 놀란 것은 의식의 내용을 수화로 전달하고 있는 한 사람의 지극한 인내심이었다. 한 시간 남짓 시종 흔들림 없이 선 채로 손가락과 표정으로 말하던 그분의 진지한 사랑의 수화. 빠르게 혹은 느리게, 짧게 때로는 길게, 손으로 나타내는 단순한 짓이나 시늉이 아니었다. 수화는 온몸으로 말하

는 언어였다.

나는 그 날의 감동을 ‘수화’라는 제목의 시 한 편에 담았다. ‘...치열 가지런한 웃음이/손가락 뒤에 숨어/영혼이여 빗장을 풀어라/풀어라 햇살에 녹아들면/꽁꽁 닫혔던 문이 소리 없이 열리는.’이라고.

요즘 웬만한 의식이나 행사는 TV에서도 수화로 내용을 전달한다. 농아들도 이제 소외계층이 아닌 세상이 된 느낌이다. 수화는 손놀림이며 표정, 몸짓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송고하지 않은 게 없다 할 만큼 충분히 감동적이다.

문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다.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않다. 편견 없이 보는 눈빛이야말로 장애인들에게 더할 것 없는 감동일 텐데도 말이다.

시설은 또 어떤가. 마지못해 내놓는다는 식의 임시변통의 구조물이 있다면 가슴 칠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이왕 하는 시설인 바에 이용자로 하여금 장애를 느낄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다. 미국 같은 선진국이 라고 장애인 천국은 아닌 모양이다. 미국에 장애인법이 나온 지 이제 18년이 됐음에도 아직 뉴욕 전철역 100여 개엔 장애인 엘리

베이터 시설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단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시혜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장애인이 능력을 갖추게 하고 그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우리하고는 한 차원 높은 의식의 충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장애인의 밝은내일 머지않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세계 유일의 청각장애인 종합대학 ‘갈루뎃대학’의 경우, 모든 강의는 수화로 진행되고 전체 교수의 60%가 청각장애인이라 한다. 또 건물 곳곳엔 청각장애인용 화상 전화가 있는데 전화를 걸면 화면에 수화통역사가 등장해 수화를 전혀 모르는 상대방과 통화를 대신해준다는 것이다. 꿈만 같은 얘기다.

하지만 나는 몇 년 전, 장애인 시설 개원식의 침묵으로 말하는 수화에서 미래를 보았다. 그 장면이야말로 한국에도 장애인의 밝은 내일이 열리리라는 푸른 신호 등이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 했다.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미국의 ‘갈루뎃대학’은 140년 역사를 가진 학교다. 기다림은 곧 꿈이다. 그리고 희망이다.

시론

사회적기업 인증조건 대폭 완화돼야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사회적 기업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영리활동을 하면서 일부 수익금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

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이는 기존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했던 일자리 창출 정책과는 다르다. 단순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영리단체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했던 제도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창출돼야 한다.

이처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늘리고 수익을 창출하면서 사회적 공헌활동을 동시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업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89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됐다. 올해에는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을 창출하기 위해 인증 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 참여확산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갖고 있다.

조건 까다로워 비영리단체 등 참여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 인증 조건들이 여전히 까다로워 참여 확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업등록을 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은 노무비 대비 30% 이상이 돼야 한다. 물론 수익창출이 불확실한 단체나 법인 등이 인건비 지원을 받으려고 구분별하게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둘째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면 신청된 유급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월 90만원 안팎이다. 그리고 해마다 영업활동 등을 평가하면서 재정지원규모를 조정하는 한편 지원 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3년이 넘은 기업은 철저히 자생력을 갖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이 결과는 올해를 기점으로 3년을 채운 기업들에 대한 운영평가가 나올 것이며 이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사회서비스와 수익창출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사업 창출이 그리 쉽지 않다는데 있다. 사회서비스 기업은 사업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며 서서히 안정을 찾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원이라는 조건으로 취약계층 고용비용 30% 규정을 준수하고 공증된 정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회의록,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등의 조건까지 두고 있다.

이 같은 조건들로 인해 영세한 비영리단체나 법인·조합 등의 사회적 기업 창출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정으로 사회적 기업을 사회 속으로 확산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인증조건 완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고

장애를 뛰어넘은 우리 모두는 한가족!



김영훈
안덕면사무소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만든 날이다. 특히 올해는 30회를 맞아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고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장애인의 날은 1981년 장애인 관련 법령이 전부였던 우리나라에서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정해진 의미있는 날이다. 그 이후 1989년엔 심신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많은 법령 개정을 통해 현 장애인복지법은 다양한 장

애인 복지증진을 이룩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또한 지난 30년간 장애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전문가 진단을 통한 장애인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장애인 본인 의사 중심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시스템이 변화하였다.

이처럼 지난 30년간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스템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벽이 아직도 높다고 본다.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는 본인 또는 자식의 장애를 부끄럽게 여기고, 비장애인은 그들을 동정하거나 혹은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필자 또한 처음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참가자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들을 이웃처럼 대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필자의 재미없는 농

담에도 웃어주는 동네 착한 아저씨, 아줌마였다.

장애인의 장애는 외면할 대상도 아니고 동정할 대상도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본 영화 ‘아바타’에선 주인공은 하반신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그는 본인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동료들은 그를 동정하지도 않으며 팀원으로 인정한다. 영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사회가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몸만 불편할 뿐인 하나의 인격체인 우리의 이웃이다. 장애인 복지는 인식적 장벽을 깨는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정책이 동반되어야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하루만 장애인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잠깐이라도 우리 모두가 주위를 되돌아보며 한가족이라고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 조세정의 · 복지확대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 토론회

“복지재정 확충” vs “사회적 합의 중요”

사회복지세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원실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4월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조세정의 ·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지는 토론회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4월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조세정의 ·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승수 의원은 “복지재정 확충과 조세 불평등 완화, 소득재분배 제고, 지방재정난 완화 등을 위해 사회복지세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재의 소득격차가 심각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바란다”며 “사회복지세는 복지와 세금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동의를 확보할 수 있어 우리 사회가 미래 복지국가로 나아가 갈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부응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 ·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납세액의 15~30%를 가산하는 방식이며, 오로지 복지확충을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세의 지출 용처에 대해 조 의원은 “사회복지세의 30%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해 지자체에 지원하고, 국고보조사업의 부담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복지예산 확대에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복지세의 20%를 재원으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교육복지교부금을 신설, 학생교육복지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자체 복지재원 · 중앙정부 복지에 예산에 활용
목적세 도입 위해 용처 · 청사진 우선 제시돼야
특정계층 세금으로 재원 조달 ‘신중’ 필요

나머지 50%는 중앙정부 복지 예산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세 활용 방안으로는 ▲출산 및 아동수당 신설 및 공공보육시설 확대와 같은 공공보육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실업수당 도입 및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고용 및 실업대책 강화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인상 및 장애인 수당 도입과 같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목적세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복지세의 경우 광범위한 복지에 대한 범위, 수혜 대상 등을 한정하기 어려워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더라도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세로 복지재원이 일정 수준 마련되면 이에 맞춰 예산이 편성되므로 복지지출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부담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도 상속 ·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이 과도한 수준이며, 기업의 투자 의욕과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악화, 일자리 감소 등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출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목적세를 도입해야 하는 지를 생각할 때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며 “2001년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목적세, 2005년 저출산고령화 대비 목적세, 대북지원 관련 목적세, 2007년 남북경협 관련 목적세, 그리고 2006년 중부세의 목적세 전환 검토 등 이전에도 목적세 도입에 따른 논란이 있어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목적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용처와 그에 대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다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사회복지세와 같은 단일한 세목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다양한 정책 조합을 통해 일반 대중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이 요구된

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 과정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양극화가 초래하는 치명적 미래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제고를 통한 국민의 조세저항 완화 ▲목적세 등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론을 불식할 만한 논리적 근거 제시를 통한 여론 주도층의 반발 완화 ▲조세증대에 따른 정책 효과 및 국민 편익증진에 대한 근거와 청사진의 정확한 제시 ▲외국의 운영 사례에 대한 적극 검토를 통한 조세개혁의 당위성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경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계층간 소득재분배를 높이는 부가증세와 서민복지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계층의 세금으로만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 대해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고 위원은 “최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으

면서 재정부담은 특정계층에만 한정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다”면서 “소득이 있는 자는 능력에 부합되게 조세를 부담하고, 복지는 누구에게나 닥쳐올 사회적 위험을 국가제도로 보호하는 보편성의 원칙이 기본인 만큼 능력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세 도입은 경제위기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운 조건에서 재원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최근 감세 혜택을 받은 부유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현실성과 설득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그러나 “세금감면의 범위를 줄여 소득세 기반을 확대하고 소비세를 확대하는 등 장기적인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목적세를 줄여나가는 현재의 추세에서 새로 목적세를 도입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엄밀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승수 의원이 발표하고 있다.

FUJI xerox

네트워크 보안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귀사의 보안은 이미 뚫리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 보안의 최대 화두는 문서 유출과 이를 막는 문서 보안.
네트워크 보안은 물론 종이문서 보안과 전자문서 보안까지 -
기업 보안 솔루션의 모든 것, 후지제록스 도큐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기업보안사고의
49.9%는
문서 유출이 원인!
(출처: 일본 네트워크 시큐리티 협회)

후지제록스의 토털 보안 솔루션

-  **종이문서 보안 - 이미지로그 솔루션**
복사, 출력, 팩스 사용 이력을 이미지로 저장 관리하여, 누가 언제 어떤 문서를 사용했는지 이미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자문서 보안 - 전자문서 DRM 솔루션**
EDMS상의 모든 전자문서에 대한 로그 관리로 비 권한자의 접근 차단은 물론 유출입 경로 추적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보안 - beat 보안 솔루션**
바이러스, 해킹 차단은 물론 파일 서버 구축까지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NAVER

도큐 컨설턴트

후지제록스의 토털 보안 솔루션을 시뮬레이션으로 경험해보세요.

문서관리 전문가
도큐 컨설턴트

(주)우리정보기술 문의:064-746-4524